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문항 1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certainty’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을 설명하시오. [20점]

문항 1 - 출제 의도

(1) 문항은 제시문 [나]의 영어 제시문에서 확실성(또는 확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사조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이해력, 그리고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EBS 수능 특강 <독서>에 수록된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 사조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1910년대 이탈리아 미래파에서 출발하여 움직임을 조형 예술로 탄생시킨 키네틱 아트의 발전 과정과 비물질성이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 문항은 확실성(또는 확신)과 절대성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논리적인 공통점을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영어 구문과 확실성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이를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관 지어 파악해야 한다. 이 문항은 글의 논지 및 논리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0	85	제시문 [가]	○
EBS 수능특강 영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190	제시문 [나]	X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0	9	제시문 [다]	○

문항 1 - 문항 해설

■ 문항 1-(1)

제시문 [나]의 영어 제시문에서 사례와 함께 제시된 ‘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가]의 키네틱 아트라는 예술사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제시문 [나]에서 키네틱 아트의 ‘비물질성’과 그 연원인 미래파의 움직임이 대상의 본질로 파악하는 내용을 제시문 [나]의 확실성과 연관시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항 1-(2)

문항에서는 영어 지문 제시문 [나]에서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의 의미가 신학과 윤리라는 추상적인 범주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영어 해석을 통해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제시문 [나]에서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확실성을 추구해 온 인류의 공통된 욕구가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대,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다는 제시문 [다]의 주장을 이해함으로써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certainty’라는 공통된 주제를 논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문맥 파악과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필자들의 논지 전개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제시문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함으로써 이해력과 비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나]의 요약 - 내용 요약의 적절성	5점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 설명 - 대상의 본질과 확실성의 관련 -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미래파 - 미래파의 회화적 한계를 극복한 키네틱 아트 - 키네틱 아트가 주장하는 비물질성 - 확실성이 움직임에서 비물질성으로 이행	10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제시문 [나]의 ‘certainty’ 내용 파악 -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추구해온 ‘certainty’(확실성 또는 확신) - 확실성(certainty)의 추상화와 확산: 개인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확신 및 어거스틴(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5점
	제시문 [나]의 ‘certainty’와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의 관계 추론 ▶ ‘선과 악의 논쟁’ 내용 요약(5점) -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봉착한 악의 문제 - 신에 대한 확신을 지키기 위한 아퀴나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 ▶ 확실성을 추구하면 봉착할 수 있는 문제(5점) - 어거스틴의 절대적인 확신과 중세 기독교의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확신의 공통점 -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확신한 아퀴나스가 ‘악’의 존재라는 현실에 직면해서 ‘선과 악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함.	10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문항 1 -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나]는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를 추구해 왔다고 주장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확실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 안정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행동 규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인류학자인 Frazer는 원시인들에게 마법은 불안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성이었고, 소의 내장을 태우는 기우제는 Bantu족에게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리게 하는 확실성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반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처럼 확실성이 개인의 행동 지표가 될 수 있고, 또한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처럼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도 확대, 추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비물질화’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에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이었다. 이는 1910년대 이탈리아 미래파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미래파는 당초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이라고 보고 여기에 확실성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화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래파의 회화 작품에는 대상의 본질인 움직임 자체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움직임 자체를 조형 예술로 탄생시

킨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작품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공간의 특정한 영역을 윤곽짓거나 그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나 영상을 방법이 시도되었다. 키네틱 아트에서 보자면, 종래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다고 본 반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물질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대상의 본질을 움직임에 둔 확실성이 키네틱 아트에서는 ‘비물질화’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 문항 1-(2)

제시문 [나]는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certainty’ (확실성 또는 확신)를 추구해 온 인류의 공통된 욕구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Augustine(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처럼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도 확대,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즉, 긍정 신학이나 부정 신학 모두에서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은 확실성 또는 확신의 대상이지만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만약 악을 인정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확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와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선과 악의 공존을 설명했다. 즉, ‘사과’는 신의 창조물로 선한 존재이나, 썩은 사과는 존재를 부정하는 악이다. 또한 사과를 존재하게 만드는 과정인 작용이란 면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사과에 대한 악이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변호하기 위한 아퀴나스의 신학적 질문은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 윤리적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다]의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변호하기 위한 아퀴나스의 노력이며, 이때 확실성은 제시문 [나]가 언급하고 있는 ‘certainty’나 그 연장선 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어거스틴(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 2

[문항 2] 제시문 [라]의 관점과 제시문 [마]의 ‘엇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각각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속도감에 대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설 「엇박자 D」의 주제와 연결지어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추론적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이진경의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이라는 글의 일부로 시간이 돈이 되기에 빠름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도의 파시즘’에 대해 비판하며 외부에서 강요되는 속도가 아닌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과서에 실린 김중혁의 소설 「엇박자 D」의 발췌문이다. 이 소설은 고등학교 합창 공연을 망쳤던 음치 ‘엇박자 D’가 20년 후 자신이 기획한 음치들의 합창 공연을 통해 남과 다르다는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본 문항에서는 ‘속도’와 ‘합창’이라는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전체’와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글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1	62-66	제시문 [라]	○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21	134-143	제시문 [마]	○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21	87-94	제시문 [마]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엇박자 D (악기들의 도서관)	김중혁	문학동네	2008	256-281	제시문 [마]	○

문항 2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라]와 [마]의 핵심적 내용과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두 글의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속도의 빠름에 대한 강요, 즉 ‘속도의 파시즘’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만의 속도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시문 [마]에서는 ‘음치’라는 상징을 통해 남들과 다른 것이 틀림으로 인식되는 사회의 획일화에 맞서 통일되지 않는 각각의 노랫소리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두 글은 ‘속도’와 ‘합창’이라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성’, ‘사회’에 맞추어 ‘부분’, ‘고유성’, ‘개인’이 강압적으로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글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글에 대한 추론적 독해력과 작품 해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이해 -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하는 ‘속도의 파시즘’의 시대이나 그 속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관성적인 속도에 이탈하는 변속 능력이 중요함을 서술함.	7점
	제시문 [마]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이해 - 고등학교 시절 통일된 합창을 망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엇박자 D’가 전체로 통일되지 않은 고유한 소리들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함.	7점
	제시문 [라], [마]의 공통점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제시문 [라]와 [마]에서는 세계 혹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획일화를 비판하고 개인의 고유성, 다양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서술함.	10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서는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며 사는 것이나 각기 다른 속도를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각자의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됨을 이야기한다. 특히, 시간이 돈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누구나 따라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버리는 ‘속도의 파시즘’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의 필자는 ‘자신의 춤’이라는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강요하는 속도에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마]의 ‘엇박자 D’는 음치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합창 공연에서 차별과 폭행을 경험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20년 후 자신이 기획한 음치들의 합창 공연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가 기획한 음치들의 노래 공연은 서로 음과 박자가 맞지 않은 노래였으나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 ‘음치’는 전체를 이루는 다수들과는 다른 소수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음악선생의 폭력과 다른 친구들의 동조는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는 억압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에서는 ‘엇박자 D’가 기획한 음치들의 노래를 통해 통일되지 않은 다양성 역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다양성의 존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의 관점과 [마]의 ‘엇박자 D’의 공연이 지닌 의도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다수인 ‘전체’에 소수인 ‘개인’이 수동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체와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억압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두 글은 사회가 개인에게 같음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은 각자의 고유성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항 3

[문항 3]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30점]

문항 3 - 출제 의도

두 제시문은 시대적·공간적 배경, 문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룬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에서 각기 발췌한 글이다. 이 문항은 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각기 다른 두 제시문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는 분석력과 공감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김동환 외)에 수록된 김창흡의 <낙치설>에서 발췌한 글이다. 조선 중기 문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김창흡의 <낙치설>에는 그가 예순여섯 살에 경험한 앞니가 빠져 버린 사건과 이로 인한 충격,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노인 됨을 받아들인 지은이의 성찰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읽어서 알았지만 수긍하지 않았던 유교 경전의 지식을 비로소 내면화하고 노년의 주자 사례를 떠올리며 노인의 삶에 알맞은 삶의 방식 및 태도 등을 모색하여 조화 속에서 담담하고 여유 있는, 즉 자유롭게 살아도 도에 합당한 경지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바]의 경우는 노인 되기, 유교 지식인의 삶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EBS 올림포스 <독서>에 수록된 조성기의 <나를 지켜보는 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제시문 [사]에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어떠한 자세로 그 죽음과 고통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 내었는가 기술되어 있다. 프랭클은 악명 높은 극한의 실존적 한계 상황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는 정신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내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자유가 남아 있으며 이때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문 [사]의 경우는 환경과 조건에 굴복 당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2	125-128	제시문 [바]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올림포스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132	제시문 [사]	○

문항 3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해 한국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두 글의 흐름과 짜임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기 노화, 노년의 삶 및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다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통하여 공감적 이해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공통점 분석 - 노화를 수용하고 노년이라는 인생 주기의 의미를 모색해 가는 제시문 [바]에 대한 이해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켜 나간 제시문 [사]의 요지를 이해함. - 각기 다른 상황을 다룬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읽고 글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 발견함.	10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차이점 분석 -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추출하고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한계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함. -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 해결 태도 및 방법 등을 추출하고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설명함. - 두 제시문에 나타난 각기 다른 문제 해결 방법 및 삶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1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문항 3 - 예시 답안

먼저 두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점부터 보기로 하자. 유교 지식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제시문 [바]의 ‘나’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자였던 제시문 [사]의 빅터 프랭클은 각기 처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된 삶에 대한 의지를 작동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제시문 [바]의 ‘나’와 제시문 [사]의 프랭클은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정신과

태도를 통해 ‘나’는 여유롭고 즐거운 노인의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고,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두 제시문에 나타난 차이점을 보면,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는 문제 상황부터 차이가 있다. 제시문 [바]의 ‘나’가 처하게 되는 문제는 문득 앞니가 빠지는 신체적 한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결핍과 한계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어떤 개체도 피해 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속한다. 이에 비해 제시문 [사]의 프랭클이 처한 문제 상황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이라는 실존적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바]의 노화와는 달리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한 부당한 폭력이자 억압이다.

두 글은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제시문 [바]의 《예기》에 대한 언급을 보면 ‘나’는 6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때까지도 노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뜻 받아들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앞니가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자신이 읽었던 《예기》의 내용과 주자의 사례를 통해 그는 자신의 노화, 노인 됨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감각적 세계를 극복하고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담담하고 평안하게 노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즐기며 삶의 도를 터득해 갈 수 있었다. 제시문 [바]의 ‘나’는 ‘마음 속 독서’와 자연의 섭리, 순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방식으로 노년이라는 자신의 생애 주기를 고양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제시문 [바]의 ‘나’가 노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해 간 데 비해 제시문 [사]의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포와 실존적 한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였다. 프랭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잃지 않았고, 애써 의미를 지어 나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용소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런 그의 선택은 그가 실존적 주체로서 삶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자유, 즉 선택의 자유를 기억하며 의지를 완성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